

제23회 고창 해풍고추 축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해풍고추 직거래 장터

- 비빔밥 퍼포먼스
- 고추 꼭지 빨리따기 대회
- 관광객 해풍고추 김치 담그기
- 전국 해풍고추 가수왕 선발대회

2019. 8. 23(금)

▶ 8. 25(일) 3일간

전북 고창군 해리면 체육관 및 신복지회관 일원

주최·주관 : 고창해풍고추축제위원회

후원 : 고창군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해리농협 고창군지역농협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고창소식>은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주세요! ☎063-560-2327

인생사진은 바로 여기! 고창학원농장 100일간의 꽃잔치 열린다

[경관농업 1번자고창] 해바라기 시작으로 코스모스, 메밀꽃, 백일홍 일제히 개화

여름꽃은 단연 섯노란 해바라기다. 햇볕이 내리쬐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해바라기 꽃이 수 만평 꽃밭에 만개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노란색 물결을 이루는 해바라기 꽃밭에서 예쁜 추억을 만든다.

지난 봄 싱그러운 초록빛의 물결로 넘실거렸던 고창학원농장이 오색 빛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100일간(10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창 학원농장 꽃잔치’는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 메밀꽃이 20만평의 구릉지에서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 해바라기와 메밀꽃은 개화 절정기가 보름 정도다. 이에 학원농장 측은 개화시기를 7개 구역별로 조정했다. 또 백일홍과 코스모스는 피고지고를 반복해 100일 동안 계속 꽃을 이어 볼 수 있도록 했다. 꽃잔치 기간에 농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언제나 2~3만평 규모에서 만개한 꽃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

특히 학원농장은 여름철 인기 피서지인 구시포·동호해수욕장, 상하농원, 선운산 등과 인접해 있어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 학원농장 진영호 대표는 “해바라기를 비롯해 수많은 꽃들이 자아내는 장관 덕분에 해가 갈수록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그늘막과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대폭 늘려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꽃구경 할 수 있도록 배려 하겠다”고 밝혔다.



패션그룹 LF·천년고찰 선운사, 손잡고 녹차 힐링관광 메카 만든다



청보리밭, 운곡습지 등 자연 그대로의 녹색생태도시로 입소문을 타고 고창군에 또 한 번 녹색을 활용한 힐링 관광명소가 들어선다. 의류 브랜드 헤지스와 마에스트로 등으로 유명한 패션그룹 LF와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가 ‘선운산 녹차밭 문화관광산업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녹차밭 실소유주인 선운사는 LF에 일정기간 사용권을 인정하고, 기업은 녹차정원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복합 관광상품 개발과 편의시설을 추진한다. 고창 선운사 녹차밭에 산책길을 꾸미고,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내 차나무 자생의 북방한계선인 선운사 일대는 작설차 맛이 각별하다. 참새작(작)자와 혀설(설)자를 쓴 선운사 작설차는 참새 혀바닥처럼 생긴 잎을 따서 차를 만들었다고 불여진 이름이며 은은한 향에 맛이 부드럽다. 고창 출신의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인 이재 환운선 선생이 쓴 ‘이재난고’에서도 선운사 차의 유래와 제조법의 특색, 그 차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노는 물이 다르다’ ‘즐거움이 다르다’ 고창의 물놀이장

무더운 여름, 집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 고창의 물놀이장은 깨끗한 청정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고, 주요 관광지 가까이 위치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 석정휴스파

〈연락처 560-7500, 고창군 고창읍 석정로 173〉

기적의 샘물이라는 프랑스의 루르드온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게르마늄 온천이다. 게르마늄은 인체내 항암물질인 인터페론 생성과 체내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내스파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남녀온천탕과 노천탕, 바데풀, 키즈풀, 수영장 등 시설이 갖춰져 있다. 여름철 단연 인기는 야외풀장이다. 스릴 넘치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잔뜩 무릎 높이의 영유아 온천탕에는 공룡미끄럼틀도 마련돼 3~4세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먹거리 공간이 들어서 있으며 안마방과 전용 휴게공간을 비롯해 수영장 유아방 등 방문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 북분자클러스터 워터&조이

〈연락처 564-6445 (북분자6차산업화사업단),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로 520〉

부안면 북분자클러스터 안에 자리 잡은 물놀이장 워터&조이는 선운산 자락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설이다. 유아용 에어풀장과 전 연령층이 사용 가능한 에어풀장, 에어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과 탈의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물놀이장은 8월1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청결하고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용수 교체와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해 운영되고 있다.



“소생 기적의 5분..신속한 조치로 응급환자 살려라”

[현장] 고창군보건소, 심폐소생술 전문가 교육현장 가보니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신속히 119에 신고해주세요”

엷된 얼굴의 여학생이 침착하게 성인모양의 마네킹(애니)의 목을 뒤로 젖히며 기도를 확보한다. 여학생은 마네킹의 상의를 풀어헤치고 가슴중앙 부위에 손을 맞댄 뒤 각지를 끼고, 팔이 바닥과 수직되게 자세를 잡았다. 곧이어 두 손으로 가슴을 세게 누르기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마네킹의 복장뼈(갈비뼈들이 연결된 가슴 한가운데 뼈) 한가운데를 세게 누르는 이 방법은 상반신에 체중을 최대한 싣고도 반동까지 이용해야 할 정도로 힘들다.

가슴을 30차례 누르고 입 속에 숨을 세게 두 번 불어넣은 여학생이 고개를 들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교육에 참가한 여학생은 “일반 사람들이 수영장이나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지는 뉴스를 자주 접했다”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물놀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창군보건소(소장 최현숙)가 지역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려면 ‘소생의 사슬’이라고 불리는 4개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빠른 119연락, 심폐소생술, 전기쇼크, 전문소생술 시행이다. 고창군보건소 진료의약팀 최정실 팀장은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응급상황에서 초기대응과 응급처치요령을 터득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출신 소설가 은희경 작가 “유년시절 함께한 고창은 내 정체성의 근간”



깊어가는 여름밤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문학 강연과 음악 공연이 진행되면서 군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지난 7월7일 오후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고창 출신 베스트셀러 소설가 은희경 작가의 인문학 강연이 열렸다. 은희경 작가는 중학교 2학년까지 고창에서 살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고창을 배경으로 한 ‘새의 선물’과 ‘비밀과 거짓말’의 장편 소설을 발표하며 큰 인기 끌었다. 은희경 작가는 ‘비밀과 거짓말’을 쓰려고 고향에 왔을 때 방장산, 선운산 등 높다란 산의 능선들이 너무 편안하게 해줬다”며 “친척분이 건네준 두꺼운 고창군지를 받아 미국에서 찬찬히 들여다보는데 산과 바다부터 시작해서 전봉준, 신재효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이게 내 정체성의 근간이 된 고향이란 존재가 주는 느낌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은희경 작가는 신영철 평론가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진정한 글쓰기 의미를 배웠던 유년시절, 고민가득 했던 학창시절, 대학교, 결혼생활의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냈다. 덕분에 관객들은 은희경 작가가 지난 25년간 발표했던 작품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2시간의 강연에 빠져들었다. 한편, 이날 밤에는 청소년들이 랩싱크 댄스경연대회 펼치고 미래고창페스티벌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고창만남의 날 선포식에선 88서울올림픽의 가수 코리아나(홍화자), 김현, 김영록, 조기량, 김병수 등 고창출신의 가수들이 함께 참여해 흥을 돋웠다.

고창군 다둥이들, 「KIA타이거즈 애국가 부르기」 이벤트 참여

고창군 다둥이들이 경건한 애국가로 한여름 밤 야구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7월5일 오후 고창군 다둥이 영유아 8가정(32명)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 전 국민 의례에서 애국가 부르기에 참여했다.

다둥이 가족들은 관중석의 환호 아래 그라운드에 올라, 마이크 앞에서 애국가를 경건하게 제창했다. 형, 누나들과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쳤던 막내도 국민의례가 시작되자 진지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애국가를 불러 선수들과 관중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창군은 2015년 통계청 조사에서 전국 다둥이 출산율 1위(전체 288명의 출생아 중 75명의 아이가 셋째 이상)를 기록하기도 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업대상 :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교 입학)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아동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족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문의전화 : 고창군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 (☎560-2295, 8092~8096)

고창군의회,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7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진행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고창군의회는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한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133억원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6,55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6,366억원, 특별회계는 18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3% 증가했으며 금년 추경예산 대부분은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심사하였다.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전북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7월 26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 지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에, 특히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를 추진 중인 심원면 갯벌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인근 주민과 각 사회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창군에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같은 에너지 시설 허가를 반대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심원면 해안선 주변을 비롯한 고창군의 빼어난 자연경관은 군민이 가꾸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임을 밝혀둔다. 하나,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를 추진 중인 심원면 갯벌 주변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고창군민들은 영랑한빛원전 인접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와 자원을 잃은 고통을 감내하여 왔으며, 자연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같은 에너지 시설 허가를 반대한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

전북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7월 26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각국의 상호의 이익과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결의안의 주요 내용처럼 "고창군민은 일본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수입상품 구매 자제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처리 의안

소관위원회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부서	의결사항
합계		14건		
자치행정위원회 (11)	158	2019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문화예술과	원안가결
	146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유산과	원안가결
	149	고창군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문화유산과	원안가결
	150	고창군 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유산과	원안가결
	15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152	고창군 농어촌농어터 운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153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수정가결
	156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원안가결
	157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원안가결
	159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 행정과	원안가결
	154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2)	147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생명과	원안가결
	148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생명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6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원안가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으로 진남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인규 의원을 선임했다. 특히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일반회계 6,366억원, 특별회계 186억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33억원 대비 419억원 (6.83%)이 증가한 6,552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신규로 시행하는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의 경우 다른 고창군 농·특산물 축제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1억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12억 730만원을 삭감했으며 지역관광협업센터의 경우 주차장부지가 아닌 적절한 위치에 부지를 확보한 후 사업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고창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 필사 챌린지’ 60일 대장정 마감

[사람이 제일 귀하다] 고창군, 5월10일부터 2개월간 무장포고문 필사 챌린지 진행
일반학생, 농민, 노동자, 장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3000여명 참여



125년전 위대한 농민혁명의 시초가 된 고창 무장포고문을 손글씨로 쓰며 가슴에 새기는 프로젝트가 2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60일간 3000여명이 참여했다. 고창무장포고문 챌린지는 지역 초·중·고등학생들부터 노동자, 농민들까지 큰 호응을 얻으며 SNS등에서 확산됐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혜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고창군 전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무장포고문을 읽어보며 각자가 마음에 드는 글귀를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었다.

특히 주민들 스스로 필사 인증샷을 SNS(#무장포고문손글씨', '#고창동학농민혁명' 등 해시태그)로 실어 나르면서 고창동학농민혁명과 무장기포, 무장포고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려 나가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포고문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에게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해 “의(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로 이어진다.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고창군 무장면에서 전국적인 혁명을 시작하며 포고문을 선언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했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대규모 항쟁으로 커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민족·민중항쟁의 근간이 되는 선언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의 행복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슬로건 발표

고창군 여성단체협 주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서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슬로건 발표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슬로건이 ‘미래의 행복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고창’으로 최종 선정됐다. 7월 17일 오후 2시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양지원) 주관으로 2019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열렸다.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회의회장, 유성엽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을 비롯한 지역 주요인사와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군민과 공무원의 설문조사로 뽑은 고창군의 여성친화도시 슬로건 ‘미래의 행복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고창’이 발표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매화라이온스 최순옥 회장 등 28명)에 대한 시상과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실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2부에선 조혜경 박사(성인지정책연구소 모든)의 여성친화도시 강연도 마련돼 큰 관심을 끌었다. 또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고창 청보리밭 축제 기간 중 얻은 수익금(200만원)을 고창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고창군 황토밭에서 자란 달콤한 ‘밤고구마’ 첫 수확

고창군 황토 밭에서 자란 밤고구마가 7월17일부터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밤고구마는 속이 옅은 노란색을 띠며, 수분이 적은 편으로 속살이 단단하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정식 후 약 150일(5개월)의 정도 자라야 한다. 하지만 속성재배기술(비닐멀칭 후 이중터널 설치)을 도입한 이번 고구마는 재배기간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수확하게 되면서 여름 휴가철 꼭 챙겨야 할 영양 간식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여기에 가을 고구마에 비해서도 kg당 2000원 이상 비싼 값에 거래되면서 농가소득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 수확하는 여름 밤고구마는 고창의 황토 밭에서 자라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 꿀처럼 달다. 앞서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인 이마트와 고구마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을 출하성수기까지 약 1000톤 정도의 고창 고구마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다.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고건담(고창의 건강을 담다) 쇼핑몰 오픈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고창군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고건담 쇼핑몰(<http://gogundammall.co.kr>)을 개설했다. 연구소는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인 ‘고건담’의 활성화를 위해 보리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고창군 소재 청맥(주)을 비롯한 11개 업체를 1차 오픈 참여 업체로 선정했다. ‘고건담’은 ‘고창의 건강을 담다’의 줄임말로, 고창군 농특산물을 통해 ‘건강한 식품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탄생했다. 고건담 쇼핑몰은 복분자, 애플사과, 바지락, 장어 등의 농·특산물은 물론 연구소와 판매 업체에서 개발한 다

양한 가공 제품을 판매 하고 있다. 연구소는 고건담 쇼핑몰 구축기념 이벤트를 8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회원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 격려 댓글을 달고 SNS에 쇼핑몰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과 할인쿠폰 등 다양한 상품을 준다.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아이케어린이집 원생 30명 이웃돕기 성금 기부 ‘화제’

더위에 지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어린이들의 소중한 마음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7월9일 고창읍 아이케어린이집(원장 이미숙) 원생 30여명이 고창읍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만원과 물품(32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성금(券)은 아이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놀이로 통해 마련했다. 이후 고창읍행정복지센터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기탁된 성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한 재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물품들은 고창읍 깨끗이 하는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바람으로 고창읍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됐다.



주택 화재 피해 월남참전용사에 새집 지어주기 ‘감동’ 월남 참전 유공자 지난해 화재 피해 고창군 35사단보훈지청 주택신축

불의의 화재로 인해 자칫 삶의 의욕이 꺾일 뻔 했던 보호가족에게 뜨거운 온정이 답 지하고 있어 무더위를 날려줄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월남 참전 유공자 김영길(무장면·78)씨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고창군과 월남참전자 전우회 고창지회(지회장 김양수), 전북 서부보훈지청(지청장 황선우), 육군 35사단 등이 김씨가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이다. 고창군이 주택 신축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폐기물 처리 등을 전담하고, 35사단 공병대대가 주택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 월남 참전자 전우회와 전북 서부보훈지청에서는 김씨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고창군 사회복지과 임재남 과장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신 유공자를 선양하는 것은 자칫히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며 “앞으로도 김씨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가전제품 등을 기부 받아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주)에너텍 직원, 지난해 이어 저소득층 가정에 선풍기 50대 후원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에너텍(대표 장인석) 직원들이 그동안 정성으로 모은 성금으로 200만원 상당의 선풍기 50대를 고창군에 기탁했다. 주방용가스용품 제조회사인 (주)에너텍 장인석 대표는 고창이 고향이며, 지난해 여름에도 선풍기 50대를 후원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장인석 대표는 “앞으로도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된 선풍기는 여름을 맞아 폭염에 힘들어 하는 관내 저소득층과 재가 장애인 가정에 전달 할 계획이다.



고창군,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 이어진다

고창군 봉사단체인 (사)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와 새마을부녀회가 고창군 관내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8월 말까지 사랑의 삼계탕 나눔 릴레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산면과 무장면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삼계탕 점심을 대접하고, 네일아트·서예교반(수지침) 등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전문이동봉사를 더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했다. 지난 7월3일 참좋은 사랑공동체와 새마을부녀회는 군민의 건강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두 달 간 매주 진행되는 삼계탕 나눔 봉사도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수어통역센터에 신규 차량지원

전북 고창군이 ‘고창군 수어통역센터’에 15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차량 교체를 지원했다. 10년이 넘었던 기존차량은 각종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이번 차량 지원을 통해 고창수어통역센터는 안정적으로 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게 됐다. ‘고창군 수어통역센터’는 관내 거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개별통역 서비스는 물론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농아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수어교육과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홍재춘 고창군 농아인협회장은 “차량은 고창군 관내 8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의 발이 될 것이라 확신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 곳곳 마을회관 · 경로당 준공

고창군 곳곳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준공돼 모두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고창 만들기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6월29일 고창군 상하면 장호마을에서 고창군수를 비롯해 내외·빈,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마을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관 준공식을 열었다. 장호마을 표상규 이장은 “마을회관이 새롭게 신축되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축되기까지 불심양면으로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7월12일 부안면 석암마을(이일현 이장), 7월17일 신탐면 구암마을(고정규 이장)에서도 마을회관 준공식이 열렸다. 또 7월26일 고창읍 천북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천북동 경로당도 신축돼 준공식을 가졌다. 고창읍 동부리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신축한 천북동 경로당은 대지면적 321㎡, 연면적 112.5㎡의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4억2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천북동 경로당 유윤갑 회장은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마을 주민들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건강한 노후와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마을 주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탐방

대한민국 전통주 산업에 이바지하는 기업, 농업회사법인 고창선운산(유)

고창군 심원면에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대한민국 전통주 산업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있다. 모든 생산제품에서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가장 대중적인 음주문화를 만드는 기업, 농업회사법인 고창선운산(유)이다.

고창선운산(유)의 주요 제품은 쿨샷7.5, 복분자주, 블루베리주, 선운산 대나무술이다. 복분자주는 고창선운산(유)의 베스트셀링 제품이다. 고창군 심원면 황토 지역에서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란 복분자 중 당도와 과육이 뛰어난 1등급 수확 분으로 빚어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어 복분자 고유의 맛과 향이 뛰어난 제품이다.

특히 자체 기술로 개발한 쿨샷7.5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국형 RTD(Ready To Drink)를 표방한 제품으로 쿨샷7.5 한병에는 평균55알의 헛복분자를 착즙한 과즙이 들어있는 술이다. 대한민국의 유수의 할인점과 대형 유통사에 납품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반응 또한 뜨겁다. 작년에는 쿨샷7.5를 2년간 캘리포니아주 등을 포함한 미국 17개주 현지마트와 외식업체 등에 유통하기로 하고 총 100만불에 달하는 수출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캠핑, 나들이, 단체모임에 적합한 대용량 사이즈로 보관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복분자주 선물세트도 준비되어 있다. 이제관 대표는 “전통주가 일반 소주처럼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그 날을 기다리며 현대의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을 술을 빚고 있다”며 “국내 전통주의 유통시장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수출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고창의 복분자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TEL : 063-561-6855

○ 홈페이지 : www.sulbox.com



고창군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구인/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

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 : 상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063-560-2366)

연번	업체명	인원	모집지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주)서울시니어스 영원에스고창	2	정산소직원	연봉2,400~2,600만원 3교대근무/오전06:00,마감21:00	재용시	고창읍
2	농업회사법인 (주)성일농장	1	CS상담원	시급 8,350원 주6일근무/09:00~18:00	재용시	고창읍
3	(주)함빛솔라에너지	2	회계경리사무원	연봉 2,100~3,00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재용시	고창읍
4	성산식품	2	현장관리자	월급 2,200만원/상여금100% 주5일근무/08:30~18:00	재용시	고수면
5	연경전자	1	제품창고관리및 출하직원	월급 200만원 주5일근무/08:00~18:00	재용시	고수면
6	라운푸드시스템(주)	10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 (일요일·목요일)/ 08:00~17:00 연장근로가능자,돌퇴근자황가	8.10	부안면
7	라운푸드시스템(주)	2	사무직(남/여)	월급 180만원 주5일근무/08:00~17:00	8.10	부안면
8	참바다 영어조합법인	1	공무책임자	월급 180만원 주5일근무/08:30~18:00	재용시	부안면
9	이앤지푸드(주)	2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8:00	재용시	부안면
10	농업회사법인 (주)에스카텔	1	회계사무원 (남/여무관)	월 250만원 (더존프로그램사용가능자우대) 주5일근무/09:00~18:00	재용시	부안면
11	도솔식품	1	농산물가공포장 생산직	월급 180만원/상여금100% 주5일근무/08:30~17:30	재용시	아산면
12	장수환의원	1	간호조무사 (경력자우대)	월180만원 주5일근무/월~금 08:00~16:00/토 08:00~13:00	재용시	상하면

사서추천- 함께 읽고 싶은 책

고창, 고창이여

박종은 / 기역 / 2019

군립,성호 : 811,7-박75 ㄱ

한국 사진계의 거목 김병만 사진가, 동아일보 사진부장이었으며 전국사진기자협회 회장이었던 오강석 사진가, 고창군의회 의장이었으며 한국사진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박현규 사진가의 사진과 함께 박종은 시인이 고창의 명소나 명물에 대하여 널리 선양하고자 그동안 써온 시를 묶어 낸 책. 가까이 있어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고창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다.

작가소개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 고창교육청 교육장, 한국문인협회, 고창군지부장,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고창예총 회장이다.

일반도서



8월 고창(高敞)의 인물

신재효(1812~1884)

조선후기의 전북 고창 출신 판소리 이론가이자 비평가.

호(號)는 동리(桐里)이며, 이방(吏房),호장(戶長)등 고창의 향리(鄕吏)를 역임했다. 신재효는 판소리 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판소리 명창 김세종(金世宗)을 자신의 집에 소리선생으로 기거하도록 해, 판소리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 명창이라 할 수 있는 진채선(陳彩仙), 허금파(許錦波)등도 그의 후원으로 배출됐다.

그는 단가(廣大歌)를 통해 판소리의 이론적인 측면을 밝히고, 판소리창자가 갖춰야할 요건으로 '인물치레' '사설치레' '득음' '너름새'의 4대 법례를 제시했다. 또 <치산가(治産歌)>,<십보가(十步歌)>,<오설가(烏蟻歌)>,<도리화가(桃李花歌)>등 30여 편의 판소리 단가(판소리를 부르기 위해 앞서 목을 푸는 짧은 노래) 혹은 가사체 작품을 창작했다. 그가 정리한<허두가(虛頭歌)> 13편은 단가 사설을 최초로 정리한 문헌 기록이다. 이밖에 판소리 열두마당 가운데 <춘향가>,<심청가>,<박대령>, <토벌가>,<적벽가>,<변강쇠대령>의 여섯 마당을 개작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한국전통 연희사전」 「고창의 인물」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화사전(판소리편)」

자식농사 잘짓는 고창 만들기에 함께해 주신 분들

- ▶ (주)금산 하병규(고창읍) 300만원
- ▶ 성송화관 김정우(성송면) 100만원
- ▶ 김이종(고창읍) 200만원
- ▶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고창읍) 200만원
- ▶ 김용태(고창읍) 200만원
- ▶ 백원철(고창읍) 100만원
- ▶ 남경자(대산면) 5만원
- ▶ 김범주(대산면) 2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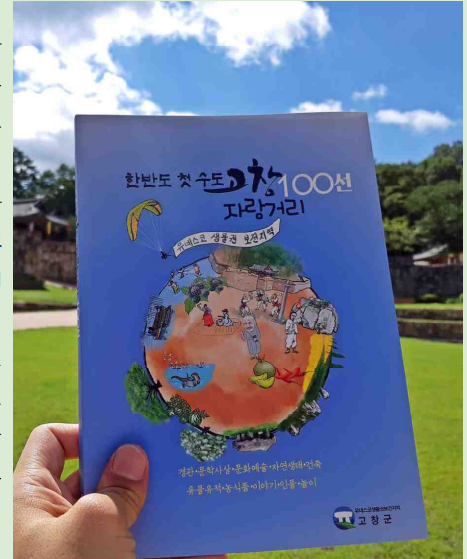
- (재)고창군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100가지 자랑거리가 책으로 나왔다

역사와 문화예술,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고창군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확립

고창읍성, 고인돌, 선운산, 동학농민혁명...

고창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100대 자랑거리가 책으로 나와 군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백가지 자랑거리를 모아 만든 책을 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 자랑거리'는 지난해 군 민공포와 고창군홍보자문단(고창문화연구회 자문)을 통해 지역 내 유·무형 자산을 총망라한 100선을 선정했다. 이후 경관, 문학사상, 문화예술, 자연생태, 건축, 유물유적, 농식품, 이야기, 인물, 놀이 등 10개 분야로 나뉘고, 군민과 외지인들이 알기 쉽게 사진과 설명을 덧붙였다. 엄선한 자랑거리 100선은 수만 년 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성과에 대한 애정과 긍지,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시작이다. **고창자랑거리 100선에 선정된 아이템에는 ▲고창읍성 ▲고창수박 ▲선운사 ▲고창 고인돌 ▲국립 밥상에 오른 고창한우 ▲고창 모양성제 ▲청보리(메밀밭) ▲신재효와 판소리 ▲고창동학농민혁명 ▲고창 복분자가 이름을 올렸다.** 또 우리지역 선운사 검단선사와 소금이야기, 술에 취한 신선이 걸어난 병마위 이야기 등 10종의 흥미로운 이야기, 거위를 살린 인본주의 대학자 윤희 선생, 반백년 한센인 지킴이 강갈라 수녀 등 11명의 인물이 실렸다. 지역 대표축제인 고창모양성제, 하늘을 날고 산을 달리는 산악자전거와 패러글라이딩, 세계최고 게르마늄 온천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석정온천 등 12종의 놀이도 선정했다. 고창군청 김정호보림 고미술 탐장은 "역사와 문화, 예술의 도시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는 고창만의 자랑거리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고창자랑 100선을 선정한 만큼 이것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군 농민수당 전라북도 최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2019. 7. 29. ~ 8. 14.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신청대상

2017.01.01. 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4.30. 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경작 하고 있는 농업인

제외대상

부부세대 분리 신청자,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자, 가족예방법 위반자, 농자산지 관련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은 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지급액

2019년 하반기 30만원 이내
※지급대상 농가수에 따라 변동

지급대상

2017.01.01. 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경작 하고 있는 농업인

지급방법

고창사랑 상품권 배부

배부처

지급대상자 주소지 농협

지급시기

2019. 9월 중(추석명절 이전)

한반도 첫수도 고창 옛 기록물을 찾습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 옛 기록물 공모전

- **용모자격** 고창의 옛 기록물(사진 및 자료)을 간직한 누구나
- **용모분야** 고창의 옛 기록물
(사진, 문서, 영상 또는 D/B와 가능한 원본 자료)

시상내역

구분	내용	금액(원)
시상금 (고창사랑상품권)	대 상(1명)	700,000
	최우수상(2명)	500,000
	우수상(5명)	300,000
	입 선(60명)	30,000

접수기간

2019. 6. 3 ~ 10. 31

접 수 처

고창군 문화예술과 예술진흥 팀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자료 및 참가신청서)

-공모자료는 원본이어야 하며 설명자료(소장배경 등)를 첨부하여 접수

-방문접수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3층

-우편접수 전북 고창읍 중앙로 245, 3층(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이메일접수 juho180@koera.kr(신청서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문의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63-560-2451)

※공모대상(기록물)을 접수할 경우 원본은 우편송부

※공모대상 기록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응모한 경우 당선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공모목적으로 선정된 기록물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및 시본제작(D/B)작업 후 반환 예정

※선정된 기록물은 전시, 판권 등 활용할 예정.

※공모된 사진의 초상권,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2019 고창 문화재 夜行

- 뿌리 깊은 역사·문화를 담은 고창 夜行

9월 6~8일(3일간) 오후 6시~밤 11시

고창읍성 / 고창읍 일원

